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우리는 늘 선을 넘지’ 슬로건... 4월 27일~5월 6일 42개국 247편 작품 상영

“우리는 늘 선을 넘지” 전주국제영화제는 30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과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 간 전주 영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열리는 영화제에는 42개국의 247편의 작품이 관객을 기다린다. 특히 올해는 ‘전주돌’이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으로 설치가 어려워지면서 영화의 거리를 영화제의 주 무대로 하되,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전주 전역을 영화제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것이 영화제의 설명이다.



우범기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또 이번 영화제에서는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전주씨네투어’ 사업을 신설했다. 전주의 다양한 아의 공간에서 지역 뮤지션과 영화 상영을 즐길 수 있는 ‘전주영화X산책’과 독립영화 배우들이 함께하는 ‘전주영화X미중’, 영화와 라이브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주영화X음악’까지 총 세 가지 테마가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올해의 프로그래머는 배우이자 뮤지션, 화가, 설치미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종합예술인 백현진 씨가 참여한다. 덧붙여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스타워즈 데이’도 이번 영화제 기간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스타워즈 신작 콘텐츠 상영과 함께 진행됐던 전시, 코스튬 퍼레이드는 지난 행사 때 팬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 영화는 중학교 교사인 남편이 물에 빠진 학생을 구하려다 사망하고, 홀로 남은 명자의 시간을 그린다. ◆한국경쟁 ‘퀴어’, ‘SF’ 장르의 약진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 출품된 작품은 111편으로 지난해보다 10편 남짓 줄었지만, 예년에 비해 다양한 주제를 담은 각기 다른 색채의 영화들이 많이 출품됐다. 특히 ‘퀴어’가 자연스러운 대사로 떠올랐고 SF적 상상력을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마크의 시골 마을에서 양부모와 조용한 일상을 살지만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내적 갈등을 겪는 한국계 입양인의 심리를 그린 한국계 말레나 최 감독의 자전적 영화 ‘조용한 이주’ 등은 새로운 시각으로 ‘내면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젊은 감독들의 도전을 만날 수 있다. ◆한국단편경쟁, 펜데믹의 영향 아래 놓인 다양한 시도들 한국단편경쟁에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가정과 사회 안팎의 돌봄을 고민하는 영화가 대세를 이뤘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질문하거나 보호 종료 청소년,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뚜렷한 문제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을 앞세워 그들의 자리를 지켜보게 하는 영화가 많았다.

◆개막작 ‘토리’와 로티카, 폐막작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올해 개막작은 세계적인 거장 다르텐 형제(장 피에르 다르텐, 빅 다르텐)의 ‘토리’와 로티카가 영화제의 시작을 알린다. 지난해 열린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75주년 기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작품은 벨기에로 넘어온 아프리카 난민 소년 ‘토리’와 소녀 ‘로티카’의 생존기를 그린 영화다. 폐막작은 김애란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김희정 감독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이다.

◆국제경쟁, 다양한 시선과 독특한 영상미 이번 국제경쟁 섹션에는 다큐멘터리가 강세를 보였던 예년과 달리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는 극영화와 독특한 영상미를 가진 실험적인 작품들이 선정됐다. 배우 이강생이 주연을 맡아 ‘쓸쓸함’이 극대화된 연기를 보여주는 중국 작품 ‘부채’와 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개교 40주년 특별전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의 개교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전도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별전에서는 영화아카데미 졸업생, 전·현직 교수, 교직원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선정된 단편영화 40편을 상영한다. 황정민, 손석구, 정해인 등 스타 배우들의 초창기 모습이 담긴 ‘그때 그 사람들’ 섹션을 비롯한 7개의 작은 섹션으로 구성된 특별전은 ‘한국영화 성장의 기록’이라 할 만하다. /뉴시스

한국전통문화전당, 맛손클럽 3기 참가자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4월 14일까지 맛손클럽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맛손클럽은 전주의 음식문화를 함께 공감하고 배우고 교류함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맛손클럽 3기는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20명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주간 주 1회씩 이론과 실습, 식문화 탐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정혜경 교수의 ‘전주음식 문화의 현재와 미래’ △조정형 명인의 ‘전주 전통주, 이강주’ △홍신애 요리 연구가의 ‘전주 식재료를 활용한 일품요리’ 등이다.

교육 종료 후에도 한식창의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은 전주음식이야기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맛손클럽은 맛의 고장 전주의 음식문화를 매개로 소통하는 실습과 더불어 나아가는 인기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라며 “익숙치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전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대한민국 대표 축제 되는데 힘 보탬 것”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김희선 국민대 교수 위촉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집행위원장으로 김희선(54) 국민대학교 교수(사진)를 위촉했다. 소리축제는 지난 29일 조직총회를 열어 소리축제를 이끌 집행위원장으로 김희선 교수를 의결했다.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국제적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 받아 2021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약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으로 국악박물관 재개관, 북한음악자료실 개설, 해외 최초 국악전시 등을 추진해 국악 발전에 일조하고 예술행정가로서 능력도 인정 받았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관객들이 전통음악의 감수성을 되찾도록 애쓰는 일은 시대의 과제”라며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전북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뮤지컬 ‘캣츠’ 오리지널팀, 익산 온다

익산예술의전당서 4월 14-16일 공연



익산시는 세계적인 명작 뮤지컬인 ‘캣츠’ 오리지널팀 공연이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국 뮤지컬 역사상 단 한 번의 흥행 실패가 없었던 뮤지컬 ‘캣츠’는 공연 첫째 날인 14일에는 오후 2시와 7시 30분, 둘째 날인 15일에는 오후 2시와 7시 각각 2회씩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오후 2시에 한 차례 무대에 올린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젤리를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객석에서 출몰하는 등 5년 만에 젤리클릭이 부활해 관심을 끈다. 공연 중에 젤리를 고양이로 분장한 배우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 통로를 누비며 관객들과 호흡하는 등 ‘캣츠’ 오리지널의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981년에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된 뮤지컬 ‘캣츠’는 2년 후에 작품상과 토니상 7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기록의 역사를 써왔다. 런던 웨스트엔드와 뉴욕 브로드웨이 등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역사적인 장기공연을 만들어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공연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익산예술의전당 회원 20%, 청소년 40%, 마티네 40%(금요일 2시) 등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gallery숨, 이주리 개인전 개최

이주리 개인전이 ‘afterimage’라는 전시명으로 4월 3~15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르면 gallery숨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그 동안의 전시기획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PLATFORM’에 참여한 47명의 작가 중 15명이 다시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PLATFORM AGAIN’이라는 기획 아래 릴레이(relay) 개인전을 펼치며 그들의 새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gallery숨은 개관 이래 ‘gallery숨’이라는 공간이 오롯이 작가들의 장이 되길 희망했다. ‘PLATFORM’은 서로 다른 개성의 작가들이



숨이라는 플랫폼에서 서로 소통하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또 다른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은 기획이다. 한편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